

[흐르는 몸은 썩지 않는다] 전시에 부처

전시의 온도: 따뜻한가 차가운가

0. 들어가며

12월의 한 겨울이라기엔 지나치게 따스한 오후였다. 을지로의 어느 골목을 꺾어 들어간 곳에는 전시공간 OF가 있었고, 정문 한 켠에는 김보은 작가의 개인전 [흐르는 몸은 썩지 않는다]의 포스터가 내걸린 액자가 관객을 맞이하였다. 검푸른 배경에 붉게 번진 열원은 전염병의 시기 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진 적외선 카메라의 색상이었고 22.5°C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이 전시가 온도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이 전시가 말하는 체온의 의미는 따뜻한 것일까, 차가운 것일까? 그것이 내가 이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에 품고 있었던 하나의 질문이었다.

1. 흐르는 몸을 마주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좌석은 대개 따뜻하게 데워져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첫번째 작업 [흐르는 몸]에 들어선 후 달게 되는 알루미늄 의자는 시리도록 차가운 감촉부터 선사한다. 어둡고 차가운 방안에 놓인 채로 당황하는 것도 잠시, 관객의 빼앗긴 체온은 전선을 타고 조명으로 흘러들어가 다시 오묘한 보랏빛으로 바닥을 비춘다. 이끼가 피어난 보도블록의 흙내를 들이마신 후에야 이 공간에서 우리의 역할이 환대받는 관객보다는 하나의 배터리에 가깝단 사실을 깨닫는다. 이처럼 [흐르는 몸]은 관객과 의자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미약한 전기를 생산하고 다시 이끼의 생명활동을 보조하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전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간 열을 소재로 하여 전시의 순환을 이끈다는 점에서 몸이 흐른다는 제목이 꼭 알맞다.

처음 바닥의 보도블록을 보고 이끼의 존재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작가는 생명을 직관적으로 연상케 하는 화초 대신 을지로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적들을 전시하였다. 이를 보자 언젠가 '땅을 전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컨텍스트(context)를 형성한다'고 말했던 승효상 건축가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 근처에 항상 존재하는 이끼를 관찰하게 하는 것은 그간 우리가 밟고 지나온 땅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것은 지구 시스템 속에서의 인간의 존재에 관한 거창한 담론이라기 보다는 일상의 생활반경 내에서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생물이라는 당연하고도 조용한 속삭임이다. 내가 걷고, 말하고, 만지는 동안에 품겨왔던 열은 누군가의 생명선이 될 수 있었을까? 혹은 내가 여지껏 얻어왔던 에너지가 어디에 기생하여 얻어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스칠 수도 있다.

기생이라는 단어가 다소 냉혹하게 들리더라도 이것이야말로 몸의 경계를 허물고 흐르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유기체라기 보다는 여러 생명이 서로에 의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세포의 에너지를 내는 미토콘드리아, 식물의 광합성을 주관하는 엽록체가 숙주인 인간이나 식물과 구분되는 DNA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 말을 뒷받침한다. 그러니 관객과 이끼가 완전히 분리된 개별 객체임을 따지는 것에 큰 의미는 없다. 이미 인간은 인간으로서, 이끼는 이끼로서 다양한 생명의 공생체인 우리를 외부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나’라고 선언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세포 단위로 파고들 때마다 ‘나’의 경계에서 흩어져 나가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몸의 경계를 굳건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포 한 톨, 내선 한 숨조차도 우리의 몸에 포용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쉬운 선택지는 우리의 몸에서 흐르는 열과 그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상호작용까지도 우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흐른다. 끊임없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서의 우리가 존재한다.

2. 흐르는 몸을 조망하며

조금 자리를 옮겨 두 번째 전시실의 [보는 게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시각보조장치]를 감상할 수 있다. 이는 [흐르는 몸]과 분리된 작품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다른 시선에서 조망하는 장소에 가깝다. 이 곳에서는 이전 전시실의 의자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실시간 영상이 상영되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를 보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두었던 의자가 식어가는 모습이나, 그 순간에 다른 관객이 자리하여 의자를 달구는 순간을 엿보게 된다. 관객의 열로 인해 남은 흔적은 빠르게 주변으로 발산되며, 열화상 카메라에 나타나는 색 역시 빨강, 노랑, 초록을 지나 차가운 색으로 되돌아간다.

또 다른 시선으로 온도를 관찰하는 경험은 작가가 조성한 생태계에서 관객을 분리하여 소격 효과를 제공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고정된 시선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을 자신과의 관계성 아래에서 해석하는 일에 익숙하다. 어린 아이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거나 고대의 세계관이 지구 중심으로 기술된 것, 또 우리가 여전히 인간 중심적 사고관에 종속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을 목격하며 우리의 사고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고, 그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또한 변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흐르는 몸]에서 발생한 열의 흐름을 적외선을 통해 직시하는 것은 관객이 완성된 전시물을 감상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전시 요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작업에 기여하는 몸 덩어리라는 사실을 환기할 수 있다.

한 편으로 ‘보는 게 익숙한’, ‘시각 보조’ 등의 형용어구는 다른 작업에 비해 대상에 관한 의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제목이다. 작업물의 구성에서 드러나는 태도 역시 유사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흐르는 몸]에서는 전등을 중심으로 관객이 둘러 앉아 서로를

바라보거나 일상적인 대면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여기서는 객석과 화면 사이의 방향성이 뚜렷하여 제시되는 자료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 우리가 보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보조 장치를 마련해주었다는 말은 곧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기에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메시지가 반영된 전시 구조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익숙했으며, 무엇을 위한 보조 장치가 필요했던 것일까? [흐르는 몸]에는 없지만 [보는 게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시각보조장치]에는 있는 요소를 통해 그를 짐작해보자면, 우리가 측정된 수치를 읽는 데에 익숙하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이곳에서는 색상의 스케일과 더불어 온도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과학을 전공하는 필자에게 데이터의 의미를 묻는다면 그것은 통계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 말할 것이다. 실제로 통계를 통해 얻는 직관은 여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잊게 만들만큼 중독적이다.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상을 분석할 수 있고, 가능한 선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는 언제나 객관적이어야 하며, 다른 요소에 의한 편향과 노이즈로 인한 부정확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법의 반작용으로 개별 사례는 서사를 상실한다. 다시 말해, 체온이 달고 흐르는 사건이 어떤 감각을 불러 일으키는 드라마가 아니라 그저 수없이 일어나는 표본 중 하나의 데이터로 전락해야 한다는 뜻이다.

3. 흐르는 몸을 놓아주며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가는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알 수 없는 존재들과 함께, 죽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간호사들의 반복적인 목소리와 소중한 존재를 잃어가는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의 질문, 하고 싶은 말이 시작된다. 살아있는 게 무엇인가? 죽은 것은 무엇일까?”

- 작가노트 中

열이나 상호작용 등의 요소를 제외하고 보면 이 작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피어남과 사그라듐의 이미지이다. 피어남은 수치의 상승, 사그라듐은 수치의 하강으로 치환될 수 있을까? 그 지점이 어쩌면 작가 노트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에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 통계적으로 관망하는 시선 아래서 인간의 삶과 죽음은 서사가 아니라 숫자가 된다. 혹자는 그제서야 죽음도 여타의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공감의 대상에서 벗어나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테다.

그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관객은 적외선이라는 보조 장치를 켜고 사람의 흔적을 바라보았다. 그 흔적이 가지는 의미를 파헤치는 행위란,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이나 이 일이 반복되는지, 각 사건들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수를 세는 과정이다. 이러한 분석이 성공적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또 다른 피어남과 사그라듐을 예측하고 그에 차분히 대응할만큼 성숙을 이뤄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이런 것을 ‘보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었는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현상을 관찰할 것인지는 관객에게 주어진 선택지이다. 너무 멀리서 작업을 바라보면 숫자에 무더질 테고, 너무 가까이서 작업을 보다간 흐르는 몸의 일부로서 함께 휩쓸려 나갈지도 모른다. 다시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자기 몸이라고 선언해야 하는지에 혼동이 오는 순간, 빠져나간 체온의 행방 또한 모호해진다. 자신인지 타인인지 알 수 없는 몸은 과연 어디에서 흘러와 어디로 흘러갈 것이며, 그 흐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디에 다다를 것인가? 자기 체감에 골몰하는 동안 화면 속에서 사라져가는 열의 흔적은 곧 우리 죽음에 관한 은유가 된다.

4. 흐르는 몸이 햇살에 달을 때

자기 목격이라는 냉담한 현실에서 도망치듯 필자는 세 번째 작업 [떼섬 그리기3]으로 시선을 옮기고자 한다. 이 곳을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오는 것은 창틀을 뒤덮은 검은 그림이었다. 온도에 반응하는 특수한 재질로 그려진 이 그림은 창밖의 햇빛, 실내의 히터와 반응하며 불규칙한 무늬를 남긴다. 관객은 이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체온을 통해 작업물에 개입할 수 있는데, 그림에 손을 가져다 대면 각자의 손이 갖고 있는 온도에 따라 짙은 흰색이나 검은색 자국이 그림에 새겨진다. 여전히 관객이 남긴 흔적은 영구적이지 않고, 열이 흩어짐에 따라 흔적도 없어진다.

[떼섬 그리기3]의 전반적인 맥락은 앞서 본 두 작업과 유사하다. 관객이 체온을 통하여 자연물과 상호작용하는 매개체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시적인 흔적을 통해 생명 활동을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이곳에서의 상호작용은 보다 즉각적이고 신체적 표현성이 강하다. 앞선 공간과는 달리 별이 드는 이 방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밝고 온화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손도장을 찍으며 전시에 참여하는 관객들에게서 명량함을 발견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따뜻함을 의도한 공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 오브제가 자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있다만, 작가의 의도를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 흔적이 새겨지고 지워짐을 반복하고, 태양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출과 일몰, 생명의 순환과 같은 자연 현상 자체에 정의와 부정을 논할 수 없듯,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떼섬 또한 자연히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흐르는 몸]에서부터 [떼섬 그리기3]까지 이 전시는 언제나 체온의 전이와 충돌, 그리고 발산의 연속이었다.

5. 몸의 순환이 남기는 것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목에서도 끝내 이 전시가 따뜻한 전시였는지 차가운 전시였는지에 대한 답은 내릴 수 없었다. 작가는 흐름과 순환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온도 그 자체에 관하여 응시하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온도는 물질의 상태, 미세한 떨림으로부터 나타나는 지표이지 그 자체로 따뜻하거나 차가움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대신 서로 간의

상태 차이로 인해서 다양한 순환이 일어나는 배경을 제공한다. 이 전시 역시도 관객을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흐르는 모습을 그려냈을 뿐 그를 제시하는 작가의 어조는 몹시도 담담하고 중립적이다.

자연물 그 자체로 온정이나 냉소가 없다하더라도 인간이 살면서 얻는 삶의 의미는 각자의 내면에 실재한다. 이 전시를 경험하고 관객이 스스로 무엇을 남겼는지 또한 각자의 몫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천문학자로 살아가는 필자의 경험에 빗대어 얻은 개인적 감상을 공유하자면, 이 전시에서 보여주는 탄생과 소멸의 순환은 별의 순환을 연상케 하였다. 빛과 상호작용하고 스스로 열을 가지는 우주의 모든 물질은 별의 순환과 함께한다. 예컨대 성간 구름은 중력을 받아 뜨거운 별이 되고, 별은 죽음을 맞으며 다시 우주 공간에 구름처럼 흩뿌려진다. 인간의 존재 또한 흩뿌려진 별의 잔해가 다시금 새로운 별로 탄생하는 과정 중에 정의된다 하여도 전혀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생명의 순환은 언제나 무로 되돌아가는 무의미한 반복만은 아니다. 별이 품는 뜨거운 공간 속에서는 더욱 복잡한 원소가 탄생하고 그 일생 품어왔던 복잡함은 초신성 폭발이라는 장대한 죽음과 함께 우주로 환원된다. 이 때문에 별의 죽음 이후의 우주는 탄생 이전의 우주와는 조금 다르다. 그 미세한 차이가 우주의 풍경을 좀 더 복합적으로 만들고 풍요로운 생명 활동을 탄생시켰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결코 그 물질의 순환에 무의미라는 낙인을 찍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죽음 앞에 나약하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속에 품고 있는 온도가 의미를 창발하고 주변에 흩뿌릴 수 있다. 그 의미가 따뜻한 것일지 차가운 것일지는 자연이 주어진 사명이라기 보단 개인에게 남겨진 책임이다. [흐르는 몸은 썩지 않는다]에서는 세계 속의 자신, 뚜렷이 경계지어지지 않는 개인의 정체에 관하여 말한다. 스스로의 모습을 목도한 관객이 각자가 가진 온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글 정만근

2023.12.18